

영종·용유지역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 상황 점검 시민들 체감하는 성과 주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용유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시화를 주문했다.

인천시는 8일 영종·용유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미단시티·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오성공원 등 주요 사업 지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미단시티 국제학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제청·도시공사 등에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지시했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중구 중산동 준설토 투기장에 체육시설(골프장)·유원지·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공사가 9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 달 준공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체육 시설(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또 미단시티 국제학교 부지는 유·초·중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활발히 진행 중으로 경제청은 최근 설립·운영법인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유치 공모 후 오는 9월 말까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유 시장은 오는 10월 이후 1단계 개장을 앞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현장사무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용유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시화를 주문했다.

(사진=인천시)

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총 사업비 3조1000억원으로 호텔 1275실, 1만5000석 규모의 국내 최초 대형 아레나 시설을 포함한 관광·휴양 시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협의가 급물살

을 타고 있는 오성공원 현장을 확인했다. 오성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해 관광 자원화 콘셉트 및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에게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 재외포청 유치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영종국제도시와 용유지역이 우리나라 관광·레저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을 적기에 제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여름철 하천발생 풍수해 적극 대응

인천시, 비상근무 회의 개최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점검

인천시가 하천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풍수해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5일 인천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하천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종합건설본부 및 8개 군·구와 재난대비 회의를 열었다.

인천시는 2개의 국가하천과 30개의 지방하천 113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

비기간(5.15~10.15) 기관별 주요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시설물 및 인근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하천분야 재난대비 비상근무 체계는 대비 단계와 비상 1~3단계로 나뉜다. 단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를 하게 되며 각 군·구별 현장 순찰 및 피해상황 파악·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여름철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하천 내 수위계를 점검하며 공사 현장에

서는 가물막이 등 관련 시설 사전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근무 시 담당자와 근무자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하천의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상황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올해 여름 많은 비가 예보된 바 우리 조직의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고 전했다.

이어 “재난 대비기간 내 하천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 전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밝

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풍수해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운연천·동락천·교산천)과 소하천 수위계측을 통한 국가·지방하천 수위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변 주민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한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9개소)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2023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승기천 설계비(10억), 유지관리비(20억) 및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3억2000만)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예정이다.

안중삼 기자



인천 지역 5개 기업이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자원봉사자 채용 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총 4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

(사진=인천시)

취약계층 집수리 자원봉사에 후원금 전달

인천 5개 기업, 총 4천5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기탁

인천시는 인천 지역 5개 기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자원봉사자 채용 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에 총 4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후원금을 기탁한 포스코인스퍼 박철호 기업시민사무국장, 브니엘네이처(주) 박정호 대표, (주)팬테크 설영희 공동대표, NH농협은행 인천본부 광성일 본부장, 신한은행 인천시금고 커뮤니터 남창신 단장, 그리고 (사)인천시자원봉사센터 전년성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원봉사자 채용 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은 인천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전

문 자원봉사자가 직접 취약 가구의 집을 수리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집수리가 필요한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도배·장판·싱크대·창문·화장실·전등 교체 등을 지원해 준다. 기업들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인천시자원봉사센터로 전달돼 집수리 사업에 쓰이게 된다.

후원금을 전달받는 자원봉사센터 전년성 이사장은 “인천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이번 후원금 기탁 결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사회공헌과 자원봉사자 참여가 함께하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자원봉사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시에서도 더욱 촘촘한 맞춤형 복지사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폐기물 재활용으로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

미추자원순환가게 이용 회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

미추홀구가 고품질 재활용품 유가 보상을 통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실천하고 있다.

8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역 내 19개소의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회원도 1738여 명이 달하고 있다. 구는 올해 76.83톤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수거해 유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미추자원순환가게 이용 회원에게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를 위한 정책이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지급은 주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해 자원순환가게에 가져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직접 보상에 주는 제도다.

환경부에서 1kg당 100원, 연간 7만원 한도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다.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원순환가게 이용 실적과 연계해 기존 유가 보상 외에 추가 포인트도 지급된다.

구는 57명의 자원관리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회원가 입 도우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한 주민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김중환 기자

공공데이터 운영 평가 광역 시·도 ‘최우수’

인천시, 16개 지표서 97.9점 행안부 특교세 5천만원 교부

인천시는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광역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교부받는다.

이번 평가는 전국 5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활용·품질·기타 등 6개 영역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인천시는 97.9점을 획득해 광역 단위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등급(96.34점)을 획득한 인천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를 시장 정책 결전의 기반자료로 활용해왔다.

특히 인천데이터포털을 개설해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와 공모전을 개최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했다.

안중삼 기자

안테나

인천시, 침선공예 과정 교육생 모집

인천시는 9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전통의 맛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침선공예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침선공예는 바느질로 솜씨를 내어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함양하고 전통생활기술을 계승·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0일부터 7월1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5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침선공예 이론과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생활소품을 만드는 실습으로 진행되며 완성된 작품은 침선공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인희재’에 전시될 예정이다.

침선공예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부터 진행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침선공예를 배우며 전통생활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전통의 맛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incheon.go.kr/agro/AGRO030301)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소속 공무원 직원 ‘아카데미’ 실시



인천시는 시 소속 공무원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공무원 아카데미를 8일부터 2주 동안 총 4회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공무직 아카데미’는 140여 명을 대상으로 단순한 강의식 직무교육이 아닌 자기 이해 및 공감 소통을 통해 공무직 직원의 공직자 가치관 함양과 조직 내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자 체험형·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오전 일정은 갈등 관리(소통은 On 갈등은 Off)와 친절 마인드(친절한 공무직의 행복한 공직생활) 2가지로 요일별 구분되며 오후에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Hold our hand 우리 손을 잡아) 체험으로 이뤄진다.

공무직 아카데미의 추진 방향은 ‘조직원 함께’를 뜻하는 WITH다.

안중삼 기자

‘뷰티풀파크 포크음악 페스티벌’ 성황

인천시는 7일 뷰티풀파크 (전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레이크존 광장에서 ‘뷰티풀파크 포크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이남주 미래산업국장, 인천시의회 이순학·김명주 의원,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이광균 이사장, (사)뷰티풀서로이음회 이순종 회장 및 산단 근로자와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크음악 페스티벌’은 백영규·도시아이들·유심초·양하영·김유철 등의 초청 가수 공연과 인천시 공무원 직장동호회 ‘공무수행’ 밴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단 근로자와 시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인천지역 경제의 핵심인 뷰티풀파크가 시민이 찾고 머물고 싶은 ‘혁신적·역동적 산업문화공간’으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중삼 기자

인천시, 세시풍속 ‘단오’ 체험 운영

인천시는 오는 16일부터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세시풍속 ‘단오’ 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은 단오(음력 5월5일)를 맞아 세시풍속 체험을 통해 농경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단오는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며 설날·한식·한가위와 더불어 4대 명절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이번 체험에서는 옛 농촌에서는 어떻게 단오를 즐겼는지 알아보고 단오부채 만들기·화재 만들기·창포물 손 씻기 등을 진행한다. 체험 신청은 12일까지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어린이·가족 등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안중삼 기자

